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전후 자주적평화통일의 촉진을 위하여

전후의 전반적정치정세는 비록 정전은 되었어도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로골화되는 침략전쟁정세로 말미암아 의연히 긴장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전쟁의 후과를 가시며 내외호전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전후 공화국이 제시한 조국통일방정에서 기본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어 협상의 방법으로 실현하는것이였다. 즉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다. 당시의 정세를 깊이 통찰한 김일성주석께서는 8.15해방 10돐을 맞으며 진행된 경주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사람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선에서는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북남조선인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선문제를 토의하며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동등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또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공화국정부가 진한시킴에 대한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 사이의 협상을 이룩하며 인민들의 자유로운 래왕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조선당국의 대표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 등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까지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45(1956)년 4월 23일에 하신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재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람들의 연합을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와 인사래왕 및 통신의 교환을 실현하며 이를 위하여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정치외교의 또는 개별적인 정당, 사회단체, 애국적인사람들의 회담을 진행하며 실지 대책을 취할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공화국

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는 이러한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에 기초하여 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조국통일 대책을 천명한 력사적인 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를 발표하였다. 선언에서는 조선문제의 종국적해결은 조선인민자체의 민주주의적의사에 기초하여 실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선언에서는 정권, 신앙의 차이를 묻지 않고 북남조선의 각정당, 사회단체들이 서로 협조하며 공동정신을 발휘할것을 절절히 호소하면서 비록 과거에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려 한다면 환영하고 협조를 할것이며 통일이 실현된 후 공로와 재능에 따라 연합정부에도 참가시켜야 할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 선언은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해온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구현이었으며 당시의 조성된 정세에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었다. 하

는 조선식의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가지는데서도 사대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문학예술분야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언제나가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남의 손을 마려고 하여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진행정에서 언제나 주체를 세우고 모든 일을 우리 식으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해방후 지식인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통일하는 길은 바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것이라고 하시였다. 이처럼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문제해결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조국통일문제를 철두철미 우리 민족의 지향과 리에 맞게 민족주체적인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 원칙,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통일의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남의 본을 따서는 안된다

통일을 불러 통일이! 장장 70여년세월 온 겨레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부르며 불렀던가.

너무도 귀에 익은 이 부름 절절한 노래에 담겨, 격조높은 시어에 담겨 가슴으로 웨쳐왔다. 통일의 길에서 이름을 남긴 수많은 유명무명의 인사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그들은 지금 우리곁에 없다. 하지만 그들의 넋은 이 땅에 남아 겨레모두를 통일로 부르고있다.

진정한 애국의 길은 어디에 (1)

오늘도 겨레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통일인사들중에는 우사 김규식선생도 있다. 김규식선생은 1880년 12월 28일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당시 일제는 1875년 8월 조선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강도적인 《운양》호사건을 도발하고 조선봉건정부와 불평등적이며 애국적인 조약을 강압 체결하는데 달라붙었다.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일제의 강압을 견디지 못하고 1876년 2월 《조선수호조규》를 체결하였으며 부산과 함께 2개 항을 개항하였다. 이로 하여 전통적인 수공업은 점차 해체되어갔고 농산품들은 일본에서 수입된 공업생산물에 비해 훨씬 값싼 일본에 수출되어나갔다. 땅조가 드는 나라의 지방에서는 충진이 육보는 법이다. 이부럽 동배부 관리로 대외관계일을 맡아보았던 그의 아버지 김지성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불균등교환으로 나라가 피해를 당하고 일본상인들의 횡포가 날마다 심해가서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렸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로 말미암아 결국 정배살이를 당하고 몇년후에는 세상을 떠났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6살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의 집안은 급속히 몰락해 갔으며 그는 일찍 고아가 되었다. 어린 그는 미국선교사 언더우드의 이른바 《자선》으로 교아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후 1897년에 조국을 떠나 미국에서 류학을 하고 거기에서 《박사》학위까지 얻었다. 그 기간 그는 저도 모르게 그리스도교신앙과 미국에 대한 환상에 푹 빠져들었다. 그것이 후날 그가 벌인 독립운동의 길에서 전진이 아닌 후진을 가져오고 겨레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는 애국이 아닌 오욕의 흔적을 남기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었다. 1904년 그가 류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눈앞에 펼쳐



4월 남북협력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김규식선생(앞줄 오른쪽에서 첫번째)과 일행

었다. 바닥없는 심연처럼 앞이 캄캄해졌다. 선생은 중국의 상해와 천진, 사천성의 여러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조선인류학생들에게 민족독립정신을 심어주는 한편 독립운동자금모집에도 관여하였다. 망명생활기간 선생은 《조선민족혁명당》 명예주석, 《상해리시정부》의 외부부장, 《중경리시정부》 부주석도 하면서 제때에는 독립애국의 제단에 자기의 심신을 깎그리 바쳤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왔다. 30여년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조국으로 귀국했지만 선생은 그때까지도 외세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했으며 본의아니게 외세가 두드러지는 반공, 반통일장단에 어울려 돌아갔다. 모스크바3국상회의이후 외세가 회의결정에서 표현한 《후견》을 《신탁통치》로 외곡하며 남조선의 사대세력들을 《반탁》으로 부추기자 그 장단에 올라나 《반탁》운동에도 열을 올렸으며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파도립의원 의장도 하면서 범죄적인 《단독정부》 실현의 폭두각 시도로도 하였다.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

말마전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국회비준동의와 한반도평화체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하여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남북합의서들이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여당은 소란스러운 내정에만 정신이 팔려 이 중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서들의 《국회》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현 집권세력에게 있다고 비평하였다. 특히 당국이 북과 단계적군축을 합의하고도 지난 4년간 사상최대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섰고 이를 견제했어야 할 여당이 오히려

말마전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국회비준동의와 한반도평화체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하여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남북합의서들이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여당은 소란스러운 내정에만 정신이 팔려 이 중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서들의 《국회》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현 집권세력에게 있다고 비평하였다. 특히 당국이 북과 단계적군축을 합의하고도 지난 4년간 사상최대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섰고 이를 견제했어야 할 여당이 오히려

을 표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북남합의서들의 《국회》비준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보수패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층은 《국회》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하여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남북합의서들이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여당은 소란스러운 내정에만 정신이 팔려 이 중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서들의 《국회》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현 집권세력에게 있다고 비평하였다. 특히 당국이 북과 단계적군축을 합의하고도 지난 4년간 사상최대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섰고 이를 견제했어야 할 여당이 오히려

말마전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국회비준동의와 한반도평화체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하여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남북합의서들이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여당은 소란스러운 내정에만 정신이 팔려 이 중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서들의 《국회》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하원철폐 및 가동민중의 요구

정책토론회에서 울려나온 목소리

거수기역할을 한데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였다고 한다. 토론자들은 《답답한 분노라 표현해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이 순간도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실패하고있다.》며 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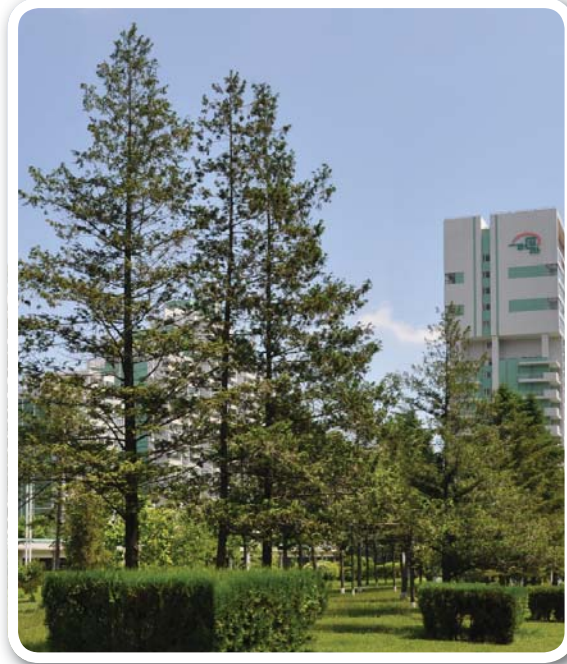
가 북남합의서들을 하루빨리 비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국회》비준을 한사코 가로막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물이 되었는지 모른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법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귀중한 인생을 감옥에서 흘려보냈다. 최근에도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되고 한 주민이 공화국을 동경했다고 해서 《보안법》상잡입탈출》 혐의로 징역형을 언도받은 등 그 피해는 계속되고있다. 문제는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세력이 《보안법》철폐를 한사코 가로막고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현 《정권》이 《보안법》폐지를 시도하였던 이전 《정권》과 다를바 없었다. 《현 국회개정안대로 찬양, 고무죄조항만 폐지해도 교실에서 교사가 북



《민족통일에국정년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들도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7)

러명거리의 잣나무, 전나무구획



러명거리에 있는 러명러관주변에 잣나무, 전나무 등 바늘잎나무들이 키돋움하며 자라 길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러명거리특화관리소에서는 바늘잎나무들을 3~4그루씩 밀집으로 심어 가꾸고있다. 이 나무들은 20여년 자란 나무들이라고 한다. 푸르러 설레이며 즐지어 서있는 바늘잎나무들의 모습은 마치 정렬해있는 명예위령대를 보는것만 같다. 잣나무나 전나무는 질이 좋아 가구재, 건축재, 선박재, 합판재 등 여러가지 귀중한 목재로 쓰인다. 또한 잣나무의 잣씨는 그대로 먹을수 있고 기름을 짜서 보약으로도 쓰며 여러가지 로리에도 쓴다. 수명이 300~400년인 전나무는 모양이 곱고 잎이 사철 푸르심상하여 공원이나 유원지에 많이 심으며 정유는 칸파원료로, 나무진은 공업용, 약용으로 쓰이고있다. 참으로 보기도 좋고 사람들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보배나무들이다. 마치 숲속에 들어온듯 상쾌한 기분을 안겨주는 바늘잎나무들은 거리의 풍치를 돋우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성능좋은 의료기구들을 개발생산한다

공화국의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 성능이 좋은 각종 의료기구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생산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과 국산화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현재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치과종합치료기와 이비인후과종합치료기를 새로 개발하였다. 이 치료기에는 각종 영상장치와 수감장치들이 달려있어 기능이 보다 현대화되었으며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앓고있는 병을 알수 있게끔 설계되어있다. 이곳에서는 민중수술대도 만들고있는데 등관올리기와 내리기기능, 좌우로 기울이기 기능 등 갖가지 기능이 있어 복잡한 외과수술을 모두 이 수술대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지지부분을 수지로 만든 부인진찰대와 해산대도 보기도 좋고 성능 또한 우월하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의료설비들을 다양한 형태로, 마음먹은대로 제작하고있다. 이곳에서 만드는 진찰침대와 환자운반침차, 환자침대들도 매 기구마다 특성에 맞게 기능이 다양할뿐 아니라 편리성을 최대로 보장하고있다. 이밖에 수술장용의료기구들과 원심분리기를 비롯하여 새로 개발한 제품들이 40여종이나 된다. 공장에서는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기술갱신과 새 제품개발사업, 필수의료설비개발기술의 도입 등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국가비밀전문화유산

묘향산은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있을뿐 아니라 유구한 력사가 깃들여있는 산으로 유명하며 그와 관련한 전설도 매우 많다. 우리 민족의 건국조인 단군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엮은 전설 《단군고과 단군》, 고대신화의 하나인 《해모수신화》를 묘향산의 자연지물과 결부시켜 반영하고있는 전설 《선유봉과 해모수》 등을 들수 있다. 또한 반질탁투쟁과정에 발휘한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위훈을 찬양한 전설들도 있다. 묘향산의 락기봉에는 13세기 전반기 외적을 쳐 물리치는데서 큰 역할을 한 김취려장군과 관련한 이야기가 깃들여있다. 락기봉의 형성유래를 보여주고있는 이 전설에는 외적을 전멸시킨 김취려장군과 고려군의 승리를 자기 교양의 큰 자랑으로 여기며 후세에 길이 전하려는 이곳 사람들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두봉화와 편월에 대한 전설에서는 연약한 몸이지만 살륙과 락탈을 일삼는 외적과 맞서 끝까지 싸운 조선녀성들의 강한 투쟁정신과 민족적 절개를 찬양하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애국적인 승려를 찬양한 전설들도 적지 않은데 《전란을 예고해준 풍경소리》, 《서산대사의 특환장 이야기》 등이 그속에 속한다. 뿐만아니라 《금강굴》, 《오선봉》, 《인호대》, 《몽연폭포》, 《명안수》, 《사자폭포》, 《감로수와 동몽룡》과 같이 묘향산의 자연풍치와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력사유적들의 유래를 밝힌 전설들도 있다. **본사기자**

생강차와 여름철의 인체건강

여름철에 사람들은 더위를 참기 어려워 가정과 사무실, 차안에서 공기조화기를 리용한다. 《공기조화기병》은 이에 따라 생겨났다. 여름철에 공기조화기가 있는 방에 너무 오래 있으면 쉽게 감기에 걸리는 동시에 땀도 나지 않는것으로 하여 머리아픔과 메스껍기, 입맛없기, 설사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특히 여름철에 사람들은 찬 음식을 너무 먹어 쉽게 《랭동기병》에 걸린다. 《공기조화기병》과 《랭동기병》은 사람들의 몸에 쉽게 랭이 침습하게 한다. 생강은 랭기를 몸밖으로 내보내며 땀을 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생강을 끓여 마시면 《공기조화기병》이나 《랭동기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생강차를 만들려면 한번에 3~5조각의 생강(5~10g)을 끓는물에 넣으면 된다. 생강차는 반드시 더울 때 마셔야 한다. 그것은 《공기조화기병》이나 《랭동기병》이 모두 폐와 위에 랭이 침습하여 초래된 것을 나타내므로 생강차를 마셔야 몸안의 랭기를 뿜고 땀이 나는데 도움을 주어 독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면역을 높일수 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새 과학영화를 제작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해 질실하게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종자로 한 여러편의 새 영화를 제작하였다. 촬영소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실용성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영화를 원리적으로, 통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과학영화 《굴진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발파기술》에서는 탄광, 광산들에서 굴진속도를 종전에 비해 1.5배 이상 높일수 있는 효율적인 발파방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농업생산을 높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과학영화 《람색세균에 의한 토양개량》, 《이동식강병이종합탈곡기 (비빔-2)호》는 저수확지를 육도로 전변시켜 작물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는 선진농기구에 대해서와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며 리용할수 있고 난알릴기능이 높은것으로 하여 도입일반화 가치가 큰 탈곡기의 성능에 대하여 소개하고있다. 과학영화 《다기능연유절약기》는 료전지제, 선박 등의 기관수명을 연장시키고 연유소비를 유해가스방출량을 줄이는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연유절약기의 구조작용원리를 설명해주고있으며 과학영화 《폴리우레탄발포제와 리용》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합성재료의 조성과 생산과정, 리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소급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영화 《바다물농축용이온교환막에 의한 소급생산》은 많은 부지와 로력을 절약하고 기후조건의 영향에 구애되지 않는 실리있는 생산방법에 대하여 보여주고있다. 이밖에 《풍양천원》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과학영화들도 창작되었다. **본사기자**

사화 림제와 화전놀이 (5)

《백호선생말씀처럼 허가 따라넘어갈만큼 우리네 화전이야 별맛종의 별맛이지.》
《우리 나라 만가지 민족 음식가운데 목젓에 기별도 없이 훌쩍 넘어가버리는 음식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이 꽃지집이요.》
《화전의 진미를 모르코야 어찌 봄을 안다 하랴》
농군들이 즐거이 따라웃으며 림제는 눈앞에 림제는 무척 감동되었다.
《흙소, 천만번 흙소! 현대 그게 어디 화전뿐이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후대에 물려준 풍속이야 전보다 훌륭하지, 훌륭해!》
이보다 더 절절한 격찬의 말을 찾지 못해 안라까와하던 림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다른 광경에 더욱 가슴이 뜨거워졌다.
림제의 결에서 한 농부가 술잔을 들고있거나 맞은편 번쩍로 다가가더니 어떤 사나이에게 잔을 들러주는 한편 다른 한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가버이 흔들며 《이보게 장서방, 그사이 날 많이 육했지, 자네 딸 혼사에 간언질을 했다구. 난 그때 나쁜 마음은 꼬물두 없이 그저 신랑전 사람이 묻는 말에 사심을 말한다고 한마디 뻔뻔한것이 그만 동리가 나서 그대에 파혼이 뉘번 했으니... 내 잘못했네, 내 오늘 자네에게 용서를 비네.》 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었다.
《정말 난 그동안 썩어지라구 자네를 육했어. 본의든 아니든 자네 내게 해를 끼쳤거든. 그런데 다른 날두 아닌 이 좋은 명절날에 화의를 청하니 내 기꺼이 받아들여네. 이처럼 좋은 날에 자네의 그 사죄의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의 육구레미도 다 러지고말았다네. 우리 오늘로써 지나간 일들을 말공이하지.》
권하는 잔을 받아들고 현현한 어조로 대답하며 한잔 술을 단숨에 꼭 들이키는 모습에 사죄를 청한 사람은 너무도 감동적지해하였다.
또 다른 광경도 림제의 감동을 자아냈다.
번쩍들이 늘어선 저쪽 끝에 마의의 화상로인이 젊은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림제앞에서 화전을 부치고있



《화상어른님, 그 말씀에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잊지 않으렵니다.》라고 뜨겁게 사의를 표하였다.
안골래도 어쩌나 감동이 컸던지 두눈에 눈물이 그렁하여 기꺼이 대답하였다.
《내 사위가 내 사위지, 잘못이야 고치면 되는거지,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따구. 손벽두 마주쳐야 소리난다구 우리 딸년이 이미 저서 특특 대담질을 했을레니 사내베짱에 주먹이 왜 나가지 않았겠나. 아무됐든 내 딸이 더는 주먹구경을 하지 않게 됐으니 이 아니 기분 일인거야. 우리 사위가 도량이 있어, 아무렴.》
녀인은 사위의 어깨를 두드려주코나서 화상로인앞에 절기뼈를 하였다.
림제는 목이 짝 메이도록 가슴이 후드워났다.
화창한 날씨도, 만발한 진달래꽃도, 감미로운 진달래꽃지짐도 다 좋지만 이날을 계기로 사람들의 마음속 그늘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살아나는것이 더더욱 좋구나. 화전놀이 이야말로 정녕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속이로다. 진달래는 일년 내내 피어있고 이런 즐거움이 매일매일 이어졌으면...
림제에게는 화전놀이에 모여온 농군들모두가 신선들처럼 안겨왔다. 따끈따끈하고 풍성풍성하며 향긋향긋한 꽃지짐을 배부른줄 모르고 한창 술을 마시며 피로한줄 모르고 춤을 추며 돌아가는 마당은 흥겨움에 그치지않았다.
이렇듯 꽃지짐의 세가지 향취와 그것을 먹고 즐기는 세가지 흥취를 림제가 《화전삼미삼방》이라고 멋마디 말로 화전놀이의 특징을 표현하자 농군들은 기꺼이 받기면서 저희들도 한마디씩 보태었다.
《서로서로 마음속 그늘을 씻고 화목을 이룩하니 하나의 보배로다.》
《맑은 물에 발을 씻고 한 몸을 보호하니 이 아니 보배인가.》

